

## “남성 성기 달고 여자대회서 우승?” ... 기록 무효화 소송



▲ 리아 토머스 사진= eonline.com

남자 성기를 달고 여자 수영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거머쥔 리아 토머스에 대해 여성 선수들이 대회의 모든 기록과 타이틀을 무효화하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대학에 소속된 전·현직 여성 운동 선수 16명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한 미국 대학스포츠협회(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지목한 트랜스젠더 선수는 리아 토머스다. 토머스는 지난 2022년 3월 전미 대학수영대회 여자 자유형 500야드(457.2m) 종목에 출전해 우승했다. 이로써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 대회에서 우승한 트랜스젠더가 됐다. 토머스는 펜실베이니아대 여자 수영팀 소속이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토머스는 2022년 6월부터는 공식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제수영연맹은 지난 2022년 6월 "12

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성전환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한다는 의미로 이전까지는 트랜스젠더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에 나갈 수 있었다.

키 193cm의 남자 수영 선수였던 토머스는 남자 대회에서 줄곧 500위권에 머물렀다. 이후 토머스는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며 여성부 대회 출전을 희망했고 미국 대학스포츠협회(NCAA)가 이를 허용했다. 토머스는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고 호르몬 대체요법만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여성 선수들은 NCAA가 리아 토머스의 여성부 대회 출전을 허용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타이틀 나인' (Title IX)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했던 대회의 모든 기록과 타이틀을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토머스와 같은 팀에 소속된 동료 선수들은 피해를 주장한 바 있다. 같은 팀 소속 폴라 스캔런은 미국 하원에 출석해 "남성 생식기가 그대로 있는 토머스 앞에서 1주일에 18번씩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자 선수들이 불만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타협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며 "학교 측에 우려를 표명했더니 오히려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재교육하기 위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선수 별 응원가에 파도타기까지 ... 'K-응원'에 폭 빠진 MLB

선수마다 달라지는 응원가에 파도타기까지. 메이저리그(MLB)에서는 볼 수 없는 'K-응원'이 서울시리즈에서 펼쳐졌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익숙지 않아 낯설어 하면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꼈다고 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이날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개막전이 열렸다. 사상 최초로 한국에서 펼쳐진 메이저리그 정식 경기였다.

'빅리그'답게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졌다. 샌디에이고는 다르빗슈 유를 필두로 일찌감치 '불펜 싸움'을 벌이며 투수력을 자랑했고 다저스는 8회 잡은 찬스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대량 득점, 5-2 역전승을 거뒀다.

경기만큼이나 눈길을 끌었던 건 응원전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KBO리그의 응원단장과 치어리더들은 1, 3루 응원 단상에서 샌디에이고와 다저스를 각각 응원했다.

응원은 철저히 '한국식'이었다. 치어리더들은 매 이닝이 끝날 때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춘 율동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양 팀의 공격 차례에선 기존 KBO리그 응원가에 양 팀 선수들의 이름을 넣은 노래를 크게 틀었다. 5회 이후엔 외야석부터 파도타기 응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외국 관중들은 생경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내 손을 들어 보이며 'K-응원'에 적응한 모습이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이날 K-응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로버



▲ KBO리그 응원단과 치어리더들이 샌디에이고 응원단상에서 '한국식' 응원을 펼치고 있다. 사진=AFPBBNews/News1

츠 감독은 "사실 3루 쪽에서의 소음은 익숙하지 않아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했다"면서도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졌다. 선수가 나올 때마다 음악이 나오고, 모든 팬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다저스의 선발투수로 등판한 타이러 글래스노우는 등판 전부터 "K-응원을 메이저리그에 도입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즐겼는데, 직접 경기를 뛰면서도 생각은 바뀌지 않은 모습이었다.

글래스노우는 "경기 내내 열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경기하는데 테큰 소리가 부담되진 않았다"면서 "어떤 선수들은 응원이 나올 때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름대로 즐긴 것 같더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개막전에는 박찬호가 시구자, 김하성(샌디에이고)이 시포자로 나서 감동을 선사했다. 박찬호는 시구에 앞서 "아침부터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단지 시구 하나 던지는 것인데 마치 한 경기 전체를 던지는 것처럼 긴장이 됐다"고 말했다.

야구 관계자들은 둘의 시구와 시포를 지켜보면서 "박찬호가 없었다면 빅리그 김하성 탄생을 장담할 수 없다. 둘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MLB 개막전을 서울에서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둘을 치켜세웠다.

# Sandy Kim 라인댄스 초급반 오픈

NOW OPEN

제일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샌디 김의 라인댄스 초급반이  
드디어 오픈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춤!

- 스트레스 해소
- 정신 건강 증진
- 만성질환 예방
- 치매 예방 효과



<초급반>  
월·목요일: 오전 9시~10시 15분  
<중·고급반>  
월·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등록비>  
일주일에 두 번 참여시 월 \$80  
한 번 참여시 월 \$45  
\* 한국어로 수업 진행 \*

T.562.279.4200

305 E.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